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한양대 경영컨설팅학과
석·박통합 1기 이한웅



Contents

I. 말레이시아 국가정보

II. 주요 업무

III. 에필로그

I. 말레이시아 국가정보

1. 국가현황

2. 정치적 환경

3. 경제적 환경

4. 사회적 환경

5. 국가정보 업데이트 주요 내용

1. 국가현황

국기	면적	인구
	<p>329.759km² (한반도의 1.5배)</p> <p>연방직할지(KL, 라부안, 푸트라자야) 외 서말레이시아 11개주, 동말레이시아 2개주로 총 13개주로 구성</p>	<p>2,860만명</p> <p>말레이계(67.4), 중국계(24.6), 인도계(7.3), 기타(0.7) (단위%)</p> <p>KL(158만), 페낭(70만) 등</p>
종교	언어	정체
<p>국교 : 이슬람교</p> <p>이슬람교(61.3), 불교(19.8), 기독교(9.2), 힌두교(6.3), 기타(3.4), (단위:%)</p>	<p>공용어 : 말레이어</p>  <p>영어(상용), 중국어(화교)</p>	<p>연방형 입헌군주제 / 의원내각제</p>  <p>現 6대 나집 총리</p>

2. 정치적 환경

과제

해결

제2대
Tun Razak

제4대
Tun Mahathir

제6대
Najib

- 안정된 국가체제 수립

- “근대화의 아버지”
- 민족연합정당체제
성립(BN)
- NEP

- 인종 간 갈등 해결
- 사회통합의 이념체제
확립

- “개발의 아버지”
- 이슬람 화 정책
- Look East Policy
- Vision 2020



- 부미푸트라 정책의 한계 극복

- “1 Malaysia”
- NEM

2. 정치적 환경 – 부미푸트라 정책

목적

부미푸트라란 ‘땅의 자손’이라는 뜻으로서, 경제 교육 등 전 분야에서 말레이계를 우대해 소수민족과의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것이 목적

배경

16세기부터 말레이인들은 영국, 포르투갈 등 서구열강에게 자원을 수탈당하고, 1955년 독립 후에는 19세기부터 몰려든 중국계 노동자들의 후손에게 모든 상권을 빼앗김. 중국계와 말레이계 간 인종갈등이 격화되고, 결국에는 1969년 5월 13일 유혈충돌이 발생함(800여명 사상자 발생)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종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부미푸트라 정책을 실시

내용

- 각종 기업은 부미푸트라 제도에 따라 말레이계 소유지분을 30%이상 보장해 옴. 단, '03년 제조업 등 외국인 투자규모가 크고 활발한 분야에 있어서는 지분제한을 폐지했고, 최근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유화함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자유화 체감지수는 높지 않음)
- 말레이어 공식교육언어 지정(초등학교때부터 과학, 수학만 영어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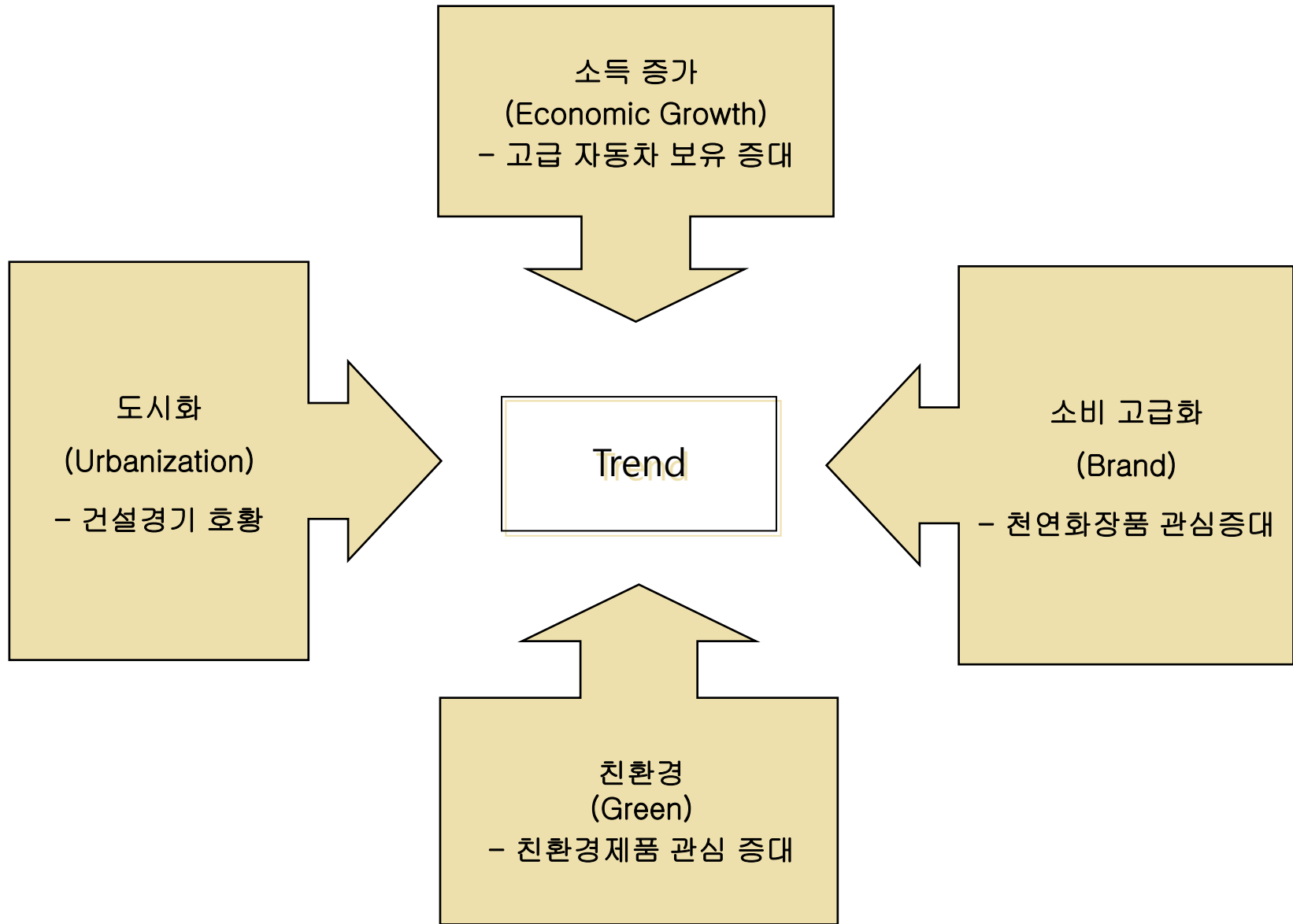
결과

말레이계가 소유한 부(富)의 비중은 70년 1.5%에서 최근 20%까지 높아짐
정치권 및 공직도 말레이계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최근에는 중국, 인도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3. 경제적 환경

중국계의 상권 장악	<u>전체 인구의 20% 인 중국계가 상권의 60~70%를 장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u> 동남아 화교 네트워크는 물론 중국 본토, 대만, 홍콩 등지의 화교 경제권과도 연계
높은 자본재 수입의존도	현지진출 외국기업 및 현지기업이 대부분 완제품 조립산업 위주의 제조활동 기계설비, 중간재 및 부품 등 자본재에 대한 수입의존도 높음
외국인 투자 활발	80년대 중반 이후, <u>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추진으로 5천여 개의 다국적 기업이 진출</u> 전기전자 및 공산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품질 및 가격 경쟁이 치열 - 2011년 FDI 해외→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해외간 금액 유사, 2011년 한국의 경우 국내→해외 투자 금액이 국내 유입 금액의 10배 기록 - 2011년 말레이시아에 대한 외국인 해외투자가 지난 10년간 최고액 기록 - 현재, 일본 기업 1300여개 말레이시아 진출, 한국 기업 120여개 진출
소비재 시장의 고급화	<u>1인당 GDP가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 대비 월등히 높음</u> <u>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 소비재의 보급이 확대</u> -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자국 브랜드 자동차 회사 2개 보유 - 자부심이 높음) - 소비패턴의 고급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건설시장 경기 회복	경제성장, '07년 양도소득세 폐지(현재는 5%), 중동자본 유입 등으로 '08년 절정 금융위기로 정체되었다가 최근 회복 중 -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및 인근 도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임

4. 사회적 환경



5. 국가정보 업데이트 주요 내용

- 1) 국가개요 : 일반사항 및 경제지표 일부 수정
- 2) 정치사회 동향 : 정부조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추가
- 3) 주요 투자법 내용 : 환경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재투자 혜택, 지역에 따른 인센티브 추가
- 4) 외국기업 투자동향 : “World Investment Report 2012” 바탕으로 내용 수정
- 5) 자유무역협정 체결현황 : 말레이시아의 FTA 추진현황 최근 이슈 추가
- 6) 지적재산권 : 말레이시아와 미국간의 저작권 최근 이슈 추가
- 7) 대한수입규제 동향 : 말레이시아 법안 발효에 따른 수입 규제 전망 부분 일부 수정
- 8) 한국과의 주요이슈 : 한국-말레이시아 산업협력 업무협약(MOU) 내용 추가

Ⅱ. 주요 업무

1. 보고서 작성
2. 무역 투자상담회 지원
3. 전시회 및 박람회 참관



1. 보고서 작성

말레이시아 산업 분석

- 말레이시아 철강, 선박, 의료 산업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KOTRA 정보사이트 “www.globalwindow.org” 탑재
 - 해당 산업의 관련 기업 참고 (실제 탑재 후 기사화되었으며, 韓 철강업체가 무역관에 감사 인사)

해외시장정보

- 전 체
- 상품시장
- 경제/산업 동향
- 무역통상정책
- FTA/무역협정
- 마케팅현장리포
- 기타 일반

국가브랜드위원회
Promoting Global Branding
글로벌비즈니스 에티켓

전 체

HOME > 해외시장정보 >

Like 0 Tweet 0

추천하기

목록

제 목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말레이시아 철강산업		
작성일	2012-08-01	작성자	정윤서 (jys0916@kotra.or.kr)
국 가	말레이시아	무역관	쿠알라룸푸르무역관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말레이시아 철강산업
-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철강정책 컨설팅 진행 -
-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바람직” -

□ 말레이시아 철강산업, 값싼 수입품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

-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철강산업은 400억 링깃(약 14조, 1링깃 360원 기준) 규모임. 현재 말레이시아 철강산업은 중국의 값싼 수입제품과 원자재의 가격 변동 등에 따라 위협을 받고 고비용 생산구조 유지로 인하여 말레이시아 철강회사의 수익성이 향상되지 않고있음.
- 중국을 필두로 해외에서 값싼 철강 수입제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철강제품 원가의 60~70%를 차지하는 원자재의 가격 변동성이 커서 말레이시아 철강회사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음.
- 2010년 1월부터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에 따라 말레이시아와 중국 간 철강 무역은 증가했으나 낮은 가격의 중국 제품으로 사실상 일방적인 對중국 철강제품 수입 증가를 가져와 무역적자를 기록함.

KOTRA Globalwindow 탑재 ('12. 8. 1일)

말레이시아, 철강 관세 35% 상향 가능성
자국 철강산업 보호 조치...한국 등 영향

트렌드 기자 (cj810@eon.co.kr) | 2012-08-02 17:48:07

말레이시아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코트라(KOTRA)는 말레이시아 철강산업이 400억링깃(약 14조) 규모로 중국의 값싼 수입 제품과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같이 진단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현재 중국을 필두로 해외에서 값싼 철강 수입제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다 철강제품 원가의 60~70%를 차지하는 원자재의 가격 변동성이 커 말레이시아 철강회사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0년 1월부터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말레이시아와 중국간 철강 무역은 증가했으나 낮은 가격의 중국 제품 때문에 사실상 일방적인 對중국 철강제품 수입 증가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철강산업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레이시아는 250만t의 철강제품을 수출했고 480만t을 수입해 230만t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아울러 한국, 일본, 중국 등은 용광로를 사용하는 반면 말레이시아 철강회사들은 전기 방식의 마크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t당 생산비용이 높게 형성되는데다 최근 전기세 인상으로 철강재 생산 단가가 높아져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코트라측은 말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국제시장에서 말레이시아 철강제품의 경쟁력이 미약해 수익성이 낮고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생산성 향상 방안 마련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BN 산업뉴스” 기사 ('12. 8. 2일)

2. 무역 투자상담회

한국-말레이시아 기업간 투자상담회 지원

- 한국 기업의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바이어 발굴 및 투자 상담회 지원 업무 지원
 - 인턴 기간 중 제주 무역사절단의 말레이시아 방문시 지원 ('12. 7.18)
 - 무역사절단 방문 전, 상담회 참가 기업 발굴 및 안내



제주도 무역사절단 투자 상담회 ('12. 7.18일)

3. 전시회 및 박람회 참관

각종 국제 전시회 및 박람회 참관, 정보 수집, 평가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되는 각종 전시회 및 박람회 참관을 통한 정보 수집
 - 2012 Malaysia International Food Beverage Fair ('12. 7.13.)
 - Malaysia International Jewelry Fair 2012 ('12. 7.16.)
 - APHM International Healthcare Conference and Exhibition 2012 ('12. 7.17.)
 - 23rd Malaysia Food Processing and Machinery Exhibition 2012 ('12. 7.20.)
 - Japanese Good Goods Fair (12. 7.26.)
 - 2012 Print Tech Fair ('12. 8. 2.)



Ⅲ. 에필로그

1. 말레이시아 생활
2. 말레이시아 인턴 준비사항
3. 개인 소감



1. 말레이시아 생활 (1/2)

1) 성향

- 신뢰 구축에 장기간 소요, 회신이 느리며, 조급함은 금물
- 길거리에서 연락처를 묻거나 하는 등의 적극적 애정 공세는 피할 것
- 동남아 국가 중 GDP가 가장 높고, 국민들의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이성적임

2) 언어 : 영어로 모든 생활이 가능하므로, 사전 영어 실력 확보 및 향상시 도움
(단, 영국식 영어이므로, 미국식 영어보다는 영국식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됨)

3) 문화

- 이슬람, 중국(화교), 인도(힌두교) 문화의 공존에 따른 다양한 문화 경험 가능
- 여성과 신체 접촉 주의해야 하고, 특히 이슬람 여성과 신체 접촉 주의 요망
- 이슬람 문화로 인한 “할랄” 인증 제도가 있으며, 인증을 받은 음식 회피 필요
- 지위, 작위 등을 중요시하므로, Data, Datuk, Tan Sri 등의 작위 또는 Dr 등 학위를 나타내는 칭호를 붙이는 것을 좋아하므로 호칭 시에 같이 붙여주는 것이 좋음

1. 말레이시아 생활 (2/2)

4) 생활

- 말레이시아 수도 KL은 지하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생활이 편리함
- 그러나, 교통체계가 불안정해서 택시나 버스를 탈 경우 도착 예정 시간 예측 불가
- 태국, 필리핀, 베트남에 비해 물가가 비싼 편이나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싼 국가
- 맛있는 한국 식당이 많으나, 매일 이용시 생활비에 부담 가중(현지 음식 대비 2배)
- 현지 음식 중에서 맛있는 음식이 많지 않으므로, 잘 찾고 적응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 대학생 인턴들이 다수 진출해 있어, 다양한 인적교류 및 네트워크 가능
- 한류 등의 열풍과 한국의 선진국 이미지가 좋게 형성되어 생활이 불편하지 않음
-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국가로, 민족 별로 식생활이 상이하므로, 식사 초대 및 선물 제공 시 민족 및 종교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
특히 공공장소에서 돼지고기 요리는 금기 시 되고 있음
- 길거리, 집앞, 지하철 등 언제나 소매치기 조심

5) 여행

- 말레이시아 항공사 Air Asia가 있어, 항공기 이용 여행시 비용 부담 적음
- 말레이시아에도 유명 관광지가 다수 있으므로, 관광 책자를 사전에 준비하면 좋음

2. 말레이시아 인턴 준비사항

1) 언어

- 영어 청취, 독해, 작문 등 전반적인 실력은 갖춰 가는 것이 좋음
- 중국어 및 말레이-인도네시아 사용 가능시 생활 및 업무에 대단히 유리

2) 숙박

- 쿠알라룸푸르 Satiawangsa station 인근 대형 콘도미니엄 지역에서 한인 게스트 하우스가 많이 있으나, 비용은 현지 게스트 하우스에 비해 1.5~2배 높음
- 보통 2~3개월 이상 숙박시 비용 할인 가능
-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숙박 예약 또는 현지에서 직접 숙박 물색도 용이

3) 업무

- KOTRA에서 만드는 국가정보 책자를 확보하거나 www.globalwindow.org에서 말레이시아 국가정보를 사전에 숙지하고 가면, 업무에 크게 도움이 됨
- 더불어, www.globalwindow.org에 올라오는 국가 최신 뉴스를 최소 3개월치를 숙지하고 가면 무역관 생활과 업무에 적응하기가 용이함
- 무역관에서 근무시 현지 직원들이 10여명으로 많이 있기에, 그들과의 좋은 관계는 업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됨

3. 개인 소감

- 1) 해외에서 2주 이상 생활해 본적이 없었으나, 4주+3일을 생활하면서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음. 그러나 짧은 기간으로 인해 사전 세팅되는 업무가 제한적임. 따라서, 업무를 통해서 더 배우고 적응한 문화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8주 이상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2) 해외 인턴 파견이 결정되면, 해당 국가 관련 KOTRA 국가정보와 최신 뉴스를 최대한 다독하고 숙지하는 것이 인턴 생활 적응과 업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됨. 그래도 짧은 기간이지만 말레이시아의 국가 경제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향후 해외 비즈니스 컨설팅을 위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됨.
- 3) 8주 이상 업무시 무역사절단, 전시회 및 박람회 업무를 최대한 맡는 것이 필요함. 그 업무를 통해 중소기업을 많이 만나고, 해외 비즈니스시 애로사항 파악이 가능함.
- 4) 많이 알면, 많이 보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느끼는 1달이었음.